

최재용

- 조선일보사 기자(1990.2~2018.9)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2019.9~2022.9)
- 경기도 부천 소명여고 국어교사
(1987.3~1989.2)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껏 60년 넘게 살고 있는 인천 토박이입니다.
30여 년의 기자생활을 포함해 대부분의 직장 생활도 인천에서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저의 전공인 국어학을 바탕으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땅 이름 유래에
대해 20여 년 넘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4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연구해온 내용들을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강의 소개

우리가 쓰는 말은 끝없이 바뀌는 생명체입니다. 오늘날 ‘뿌리’가 중세국어에서는 ‘불휘’였고, ‘어리다’가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이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꼴이나 뜻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땅 이름도 우리말의 일부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꼴과 뜻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 고대어와 중세어를 거쳐 현대어에 이르는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과정

회차	주제	내용
1	땅 이름의 해석 개관	• 땅 이름의 정의와 특성
2	땅 이름 해석의 어려움	• 시대와 장소에 따른 언어와 땅이름의 변화 설명
3	우리말 땅 이름과 한자 땅 이름	• 한글이 없던 시절 한자(漢字)로 우리말 땅 이름을 표현한 한자 차용(借用) 표현의 해석
4	잘못된 땅 이름의 해석	• 지금 이름 그대로나 전설에 따른 해석의 잘못
5	언어학적 땅 이름 해석	• 가장 정확한 해석 방법인 언어학적 해석 설명

강의 대상

- ‘문화유산해설사’ 등 땅 이름 해석에 연관이 있는 직업군
- 대학생 이상의 일반 시민

이메일

go9886@naver.com